**비대면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김윤재, 김지후, 이고은, 지승우, 정다연, 조예나

1. **입론**

**대면 측의 허점)**

* 2차 감염이 터질 수 있음.
* 대면 방식은 코로나 확진 시에 책임이 학교가 아닌 본인에게 돌아감.

**비대면 측 내용 주장)**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음.

- 자율성을 키울 수 있음

- 통학 시간이 긴 사람들은 통학 시간을 활용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녹화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다시 듣기가 가능함.

- 학습 역량 향상

- 다시 듣고 복습 가능

- 강의 중 놓친 부분 반복 재생 가능

* 강의를 듣는데에 인원 제한이 없음

- 비대면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을 수 있음

- 집단 감염의 우려를 막을 수 있음

따라서 저희 비대면 측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비대면 수업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2. 반론 (상대측에 질문)**

**우리 측 질문1)**

**확진자를 통해서 학교의 이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처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이미 우리 대학에는 출입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확진자 가 발생하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해서 추후 n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우리 측 질문2)**

**확진 시,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최근 확진자에 대해 공표할 때 확진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확진자들의 동선만 알려준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

**(우리측 질문2-1)**

**그렇게 대응한다 해도, 결국 주변인들은 어차피 최초 확진자가 누군지 알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비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비난도 하나의 폭력이다. 잘못은 확진자 본인에게 있지 않디. 확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측 질문3)**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무증상 확진자의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첫번째 답변과 똑같이 동선파악 후 사후 대처를하면 된다.

**우리 측 질문4)**

**대면을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다시 비대면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비대면을 대체한다면 예방책차원으로 애초에 비대면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면 수업의 시도에 의의가 있다. 일단 시도부터 하며, 예방수칙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우리 측 질문5)**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음,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빠름.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백신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여온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도 효용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시 부가 혜택도 있다. 또한, 대면수업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야 함.

1. **질의응답**

**대면 측 반론 1)**

**대학교와 다르게 초, 중, 고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 중이다. 등록금도 더 내는 대학교는 왜 학교를 가지 않는가? 비대면 수업이 계속된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등록금은 학교 시설 이용 대가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성공회대는 등록금 의존률이 높다. 따라서 등록금은 학교 발전에 쓰인다고 이해하는 게 맞다.

또한 아래 통계를 근거로, 대면에 반대하는 바이다.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5.20.) (moe.go.kr)](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47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대면 측 반론 2)**

**의학계열은 더 이상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 건국대 화학과에서의 키트 배송 후 집에서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간단한 실험들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국대학교 화학과, 코로나 시대 ‘재택실험 실습’ 눈길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lecturernews.com)](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96)

**대면 측 반론 3)**

**비대면 시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 당장의 학업순위의 저하로 제 1순위인 건강을 해칠 순 없다.

**대면 측 반론 4)**

**상권침체와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가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특별하게 상권을 묶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면 측 반론 5)**

**비대면 시험 시행 시 발생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코로나 걸리는 게 위험이 더 크다.
* 시험 볼 때만 대면으로 실시하자.

1. **최종 변론**

우리는 이제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집단 행동이 거부되는 만큼, 공동의 것인 수업의 방식에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 수업 방식을 주장한다. 비대면 수업은 강의를 듣는데에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서 수업으로 인한 집단 감염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이라는 이점 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학생 본인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고, 통학 시간이 긴 사람들은 통학 시간을 활용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녹화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여 부족한 부분을 다시 듣는다면 학습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 1. 2차 감염이 터질 수 있고, 2. 확진 시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우리는 대면 수업 진행 방식을 반대하는 바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해왔고, 우리는 항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되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 찬성하는 바이다.